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7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강미경 자매님께서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59,099,660	전월이월금	5,000
-------	------------	-------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85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지원비	2,400,000	노동사목회관
운영비	46,474,660	이주사목위원회	
지출 총액	59,049,660	잔액(이월금)	5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20. 06 / 제48호

펴낸날 2020. 06.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희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는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거나 운전이나 식사를 할 때, 또는 시험을 볼 때나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가 거주하고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성스러운 사랑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삼위가 한 주님이시라는 신비이며, 우리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 성부 - 창조하는 사랑

6월에는, 성인들의 축일들 외에도, 대축일이 3개 있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 이 3개의 대축일들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 성자 - 세상의 이민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육화'의 신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셔서 이민자가 되셨고 순회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성부 하느님께로 돌아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밖에서 온 사람이라면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우주 밖에서 "외계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alien"이라는 용어는 많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서 종종 "외국인"(예: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lien"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외계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외계인"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는 낯선 사람,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또는 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Alien"이라는 단어를 다른 낱말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에서 "Alien"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어와 그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류가 서로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성령 - 일치 - 하나 되기를

구약의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자만심과 하느님을 향한 닫힌 마음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이해하며 일치하지 못합니다. 성령 강림일에, 하느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사용한 언어를 이해하고 일치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성령께서는 항상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상황처럼, COVID-19의 상황과, 다른 인종을 무분별하게 살해한 사건은 우리 사회와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는 인종차별의 악한 얼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위험한 유혹을 보여 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삼위일체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끝을 맺습니다. 삼위일체의 상징 중 하나는 1×1×1 또는 1÷1÷1이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 1 나누기 1 나누기 1); 모두 1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중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삼위일체의 사랑과 존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지만 삼위일체의 무한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원 고 삼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몽골공동체 소식*



몽골공동체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노동사목회관에서 10명 내외의 신자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님 (Fr.이광휘)께서 미사 집전을 해주시는데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대전교구 변윤철 다미아노 신부님께서 1년 정도 한국에 머무르실 예정이라 계시는 동안 몽골공동체 미사에 함께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모국어가 주는 편안함은 신자들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 봅니다. 함께해 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영화 소식*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의미 있는 영화(안녕, 미누)가 개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존재 자체로 불법이 될 순 없다" 이주노동자이자 문화운동가였던 네팔 사람 '미누(미노드 막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난 6월 5일 명동역 CGV에서 이주사목위원회 사회사목국 각 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스무 살부터 식당일, 봉제공장 재단사, 밴드 보컬까지 18년을 한국에서 생활한 미누는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며 청춘을 바쳤지만 강제 추방당해 네팔로 돌아가게 되었고 고국에서 다양한 의미있는 일을 하며 성장하고도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미누를 위해 옛 밴드 멤버들이 네팔로 가서 함께 무대에 서는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 내용으로 미누의 행복한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려는 것 뿐인데 대한민국은 우리와 비슷해지고 있는 모습이 두려워서인지 그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주노동자를 불쌍하게만 표현하지 않고 담백하지만 그 안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미누는 공연할 때마다 노동자의 상징인 목장갑을 끼고 노래합니다. 열심히 일한 손... 왜 그 손을 싫어하고 잡아주지 않는냐는 영화 속 대사가 이주민 관련 일하고 있는 저희 실무자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주민들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 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화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코앤코 음악수업>



<개학 전 방역>

사회사목국 소식*

지난 5월 27일 수요일 성 앙베르 센터에서 서울대교구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주관: 사회사목국)가 있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사회사목국의 각 위원회를 소개하고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을 통해 앞으로의 사목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OX퀴즈, 위원회 소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연수에 참여하신 신부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사목하시는 데 사회적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참된 사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주민 관련 보도기사 소식*

<연합뉴스 2020.06.01.>

외국인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표현 사라진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에일리언에는 '외국인 체류자' 이외에 외계인 또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Alien'을 대체할 영문 표기를 선정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에는 'Alien Registration Card'라는 영문이 병기된다. 정부는 1966년 처음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부터 외국인을 'Alien'으로 표현해왔다.

새 등록증에는 'Foreign National Card'나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 중립적 표현이 사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출범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움주신 분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수녀님 두 분께서 재난지원금 30만원 선불카드 2개를 주고 가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